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Quant Comment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종목

미국 실적 모멘텀 독주 지속, 에너지 섹터 이익 폭증. 유럽도 에너지 섹터 이익 상향으로 이익모멘텀 상위. 상대적으로 아시아 이익모멘텀은 다소 부진(한국은 반도체 영향으로 실적모멘텀 아시아 최상위).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업종의 이익모멘텀 유지 중, 현재 PER 17.4배 수준으로 최대 32배대비 크게 낮아진 상황. **롤스로이스홀딩스**: 전 세계적인 국방비 증액으로 전투기 엔진 수요가 폭증, 또한 항공운항 리오프닝 이후 엔진 유지보수(LTSA) 매출 증가. **보잉**: PAC-3 미사일 시커 대량 증산 계약(4월 1일)이 실적의 하방을 단단히 지지, 또한 고유가로 인해 역설적으로 항공사들이 연료 효율이 높은 신형 기종(737 MAX, 787) 도입을 서두르며 수주 잔고가 실적으로 빠르게 전환

글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 **에너지**(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초과이익 국면). **음료/식품**(인플레이션 전가 가능, 경기 방어적 특성 부각), **반도체**(AI 서버 및 HBM 수요가 공급을 압도, AI 추론용 칩 개화), **통신·전자장비**(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안보용 통신망' 강화와 AI 데이터센터용 초고속 광통신 장비 교체 주기), **다각화소비자서비스**(노동 시장 재편에 따른 '전문 기술 교육' 및 '보안 서비스' 수요가 급증, 전쟁 여파로 개인 및 기업의 안전 자산 보관/관리 서비스 매출 상향)

하향 업종은 **항공**(항공유 가격이 전년 대비 80% 이상 폭등, 중동 공역 폐쇄로 인한 우회 항로 이용과 높은 티켓 가격에 따른 수요 위축), **가스 유틸리티**(천연가스 수입 단가는 폭등했으나, 공공 요금의 성격상 규제 당국의 승인 없이는 판가 인상이 지연되어 역마진 구조가 발생), **부동산 관리·운영**(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며 리파이낸싱 비용이 폭등, 상업용 부동산의 캡레이트 상승으로 보유 자산 가치가 하락), **자동차**(차량 가격 상승과 고금리 할부 금융 부담으로 인해 신차 구매 수요가 둔화, 특히 고가 라인업의 판매 비중이 줄며 믹스 악화가 진행 중), **호텔·외식·레저/의류사치품**(경기 우려 부각), **산업 복합기업**(글로벌 건설 및 제조 프로젝트의 중단·지연이 속출하며 수주 잔고의 실적 전환 지연)

실적 추정치 상향 주요 종목은 BP, 보잉, 발레로에너지, 에퀴닉스, 마라톤페트롤리엄, 롤스로이스홀딩스, EOG리소시스, 코노코필립스, 필립스66, 셰브론, 엑슨모빌, 썬커에너지, TSMC,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토탈에너지즈, 시게이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하향 주요 종목은 소프트뱅크, 프로수스, 아레스매니지먼트, 리얼티인컴, 코인베이스, 지멘스헬시니어, 컴캐스트, 메르카도리브레, 나이키, 혼다, 블랙스톤, 퀄컴, BYD, 프로수스, 샤오미, 닌텐도, 콰이슈테크, 메이퇀, 에어차이나 등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수급

코스피 1Q26F OP는 133조원 (1W +0.0%, 1M +2.4%, QoQ +62%). **2026E OP**는 663조원 (1W +2.9%, 1M +7.7%, YoY +120%), 연간 실적 모멘텀 재차 확대. **1Q26F OP 상향 업종**은 항공, 건설, 정유, 디스플레이, 기계, 음식료, 반도체, 증권, 화장품, 상사, 해운, 기술하드웨어. **하향 업종**은 화학, 건강관리장비, 손해보험, 호텔레저, 철강, 방산, 방송엔터, 은행, 상호미디어

국내 대형주 리비전 특징주(1Q26F OP)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미래에셋증권, SK, SK이노베이션, HMM,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상향. 삼성바이오로직스, SK스퀘어, 카카오뱅크, 현대오토에버, 한전기술, CJ, 현대제철, OCI홀딩스, 한화엔진, 한화비전 하향

1Q26F OP 상향 주요 종목은 SFA반도체, 원익IPS, 로보티즈,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S-Oil, 엘앤에프, 서진시스템, 포스코퓨처엠, 한올바이오파마, 씨젠, LG, 에스티팜, 비에이치아이, 코오롱인더, 브이엠, LG이노텍, 미래에셋증권, 티에스이, 대한전선, DL, 하나마이크론, 엔씨소프트, 삼성전자, 대한항공, LX인터내셔널, HMM, NH투자증권, SK, 대신증권, 롯데정밀화학, 대적전자, 롯데쇼핑, 대주전자재료

외국인은 대형주 및 배당, 성장주 전반에 강한 매도세 집중,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전 스타일 순매수 전환. 외국인 순매수는 코스피 -6조원, 코스닥 +1,400억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은 가전, 기술하드웨어, 정유, 방산, 건자재. **순매도 상위 업종**은 반도체, 은행, 자동차와부품, 건설, 조선

연기금은 코스닥 및 가치주 위주로 매도세. 연기금 순매수는 코스피 -1,700억원, 코스닥 -1,700억원.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정유, 내구소비재, 필수소비재, 2차전지, 디스플레이. **순매도 상위 업종**은 유틸리티, 가전, 항공, 가구, 건자재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 실적발표)

4.6일(월)

중국 청명절 휴장(지표 없음), 미국 3월 고용추세지수(ETI)(오후 11:00) / -

7일(화)

미국 2월 소비자신용(8일 오전 4:00) /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오전 08:40 예정), LG전자 (1분기 잠정, 오후 16:00 예정), WD-40 (8일 오전 5:45 예정)

8일(수)

한국 2월 국제수지(잠정)(오전 8:00 - 한국은행), 미국 주간 원유재고(오후 11:30) / 리바이스 (9일 오전 5:10 예정), 램 리서치 (9일 오전 5:00 예정)

9(목)

한국 3월중 금융시장 동향(오후 12:00 - 한국은행),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오후 9:30),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오후 9:30) /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오후 8:30 예정), 델타 항공 (오후 7:30 예정)

10일(금)

경제지표: 한국 금융통화위원회(기준금리 결정)(오전 9:00~, 기자간담회 11:10), 중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 생산자물가지수(PPI)(오전 10:30), 미국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오후 9:30) / JP모건 체이스 (오후 7:45 예정), 웰스파고 (오후 8:30 예정), 블랙록 (오후 7:30 예정)

Quant Comment

글로벌 에너지와 IT 실적모멘텀이 가장 높은 수준, 미국은 두 섹터 모두 실적 부각, 대만 및 한국은 반도체 위주로 실적모멘텀 우위

선진국 휴장일인 지난 주 금요일 한국 증시에 외국인 순매수 전환, 비트코인은 67,000달러 수준으로 저점인 66,000달러대비 소폭 높은 수준, 극심한 안전선호는 점차 한계 체감될 것

한국 2차전지(유가 상승 → EV 수요 반등, AI발 ESS 수주) 및 건설(중동 오일달러 수혜, 국내 주택 기저효과, 원전 기대감) 업종 실적 리비전 업, 빅 무브 관찰

한국 반도체 연간 실적 추가 상향 관찰(1분기 프리뷰 시즌에 연간 실적모멘텀 부각), 7일 삼성전자 실적발표 후 추가 실적상향 조정 기대

중동 전쟁 지속 분위기로 트럼프 최후통첩 4.7일 오전 9시(한국 개장 시간), 전후 추가적인 변동성 요인 상존

무리한 지수 베팅보다는 1분기 및 연간 실적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알파(종목) 플레이 유리